

[盧 前대통령 서거]

63년 풍운의 삶에 맺은 '기구한 인연'

그때 그 사람들

노무현 전 대통령은 63년간의 길지 않은 삶에서 다양한 인물들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.

이들은 당시엔 인식하지 못했지만 민봉 출신 변호사였던 노 전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고, 대선에서 승리하기까지 적지않은 역할을 담당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.

노 전 대통령의 정계 진출의 첫 단추를 꿰 사람은 1980년대 초 부산 재야의 좌장 역할을 맡았던 김광일 변호사다.

당시까지만해도 요트를 즐기는 잘나가는 변호사였던 노 전 대통령은 김 변호사의 데타로 부산의 운동권 30여명이 걸터뒀던 부림 사건 변론을 맡게 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.

노 전 대통령은 교도소에서 57일간 구금돼 구타와 고문을 받은 한 학생을 만난 뒤 시국에 눈을 뜨게 됐고, 결국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다.

김 변호사는 13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노 전 대통령을 천거, 정계입문에 도움을 주



지난 27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에서 줄을 서 분향을 기다리던 시민들이 국화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있다. /연합뉴스

부장이 주선회 변호사였다. 이후 주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을 구속한데 대해 "공직자는 민간인이 통치하든 옷을 벗은 군인이 통치하든 직책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다"고 회고하기도 했다.

대검 감찰부장 등 요직을 거친 주 변호사

서민 위한 필생의 정치과업 새길 듯

碑文에 무슨 내용 담나

'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'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에 따라 세워질 비석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.

27일 장의위원회에 따르면 아직까지 장지와 봉분조성 여부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노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비석을 세운다는 것은 확실히 정해졌다.

이에 따라 장의위원회는 이 비석에 어떤 글자를 담을 지를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. 일단 노 전 대통령측은 장례 이후에 차

분하게 준비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부에서는 비문 내용에 노 전 대통령이 평소 가지고 있던 신념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최근 봉하마을의 분향소를 찾은 노 전 대통령의 386그룹 핵심인사인 최인호 전 청와대 비서관은 비석을 남기려는 노 전 대통령의 유지에 대해 "자신은 비록 떠나지만 사회개혁과 민주주의 발전, 지역감정 해소, 서민을 위한 노력들은 영원히 기억됐으면 한다"는 마지막 회담으로 해석된다"고 밝혔다.

노 전 대통령의 비문에 어떤 내용이 들

어갈지를 가능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. 이 같은 최 전 비서관의 해석을 고려하면 비석에는 노 전 대통령의 평소 신념을 어떤 형식으로든 포함한 비문이 새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.

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신념을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비문을 집필할 것이라 전망도 나오고 있다.

노 전 대통령측 관계자는 "비문 내용은 장례 이후에 처분하게 준비해야 하고 유족 중심으로 협의해야 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盧 전대통령 유고집 나올까

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노 전 대통령의 유고집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
노 전 대통령측 관계자는 "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생각을 정리한 글이 파일 형태로 남아있다"며 "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관광객 인사를 하면서 했던 육성도 무형의 원고로 볼

수 있다"고 말했다.

이 관계자는 "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정해진 방침이 없다"며 "장례식이 끝나면 유족과 상의해 책으로 출판할지, 일부를 세상에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"이라고 전했다.

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컴퓨터에 남긴 원고에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, 국민통합, 양극화 해소 등 평소 관심분야에 대한 생각이 완결되지 않은 형태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김광일 정계입문시키고 2002대선 땀 등 돌려 주선회 인권변호사 盧 구속... 탄핵땐 盧의 편에 정몽준 2002 대선 지지철회, 되레 盧 지지자 결집

기도 했다. 그러나 김 변호사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"노무현 후보는 사이버 인권운동가, 위장 서민, 지역감정 이용자로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"고 비난하고 "그의 정체를 바로 알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를 지지할 수 없을 것"이라고 주장하면서 노 전 대통령과의 사이가 멀어졌다.

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87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대우조선 노동자인 이석규 씨 분신 사건과 관련, 제3차 개입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도 뜻하지 않은 인연을 맺었다.

당시 검찰은 눈엣가시같은 존재였던 노 전 대통령 구속을 위해 세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, 하룻밤에 세 차례 당국 관사와 법원장 자택을 찾아다니며 영장을 청구하는 의욕을 보였다.

구속영장 청구를 지휘했던 부산지검公安

은 지난 2001년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천에 따라 현재 재판관으로 임명됐다.

주 변호사는 2004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의 주심을 맡았다. 당시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. 당시 육체적, 심리적 스트레스가 누적됐던 주 변호사는 탄핵선고 며칠 뒤 각혈을 시작해 왼쪽 폐의 절반 가량을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.

노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과도 기구한 인연을 맺었다.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정 최고위원과 극적인 단일화를 이뤄내면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지만 '공동정부'를 둘러싼 이견으로 대선 전날 정 최고위원의 지지 철회 선언이 나왔다.

그러나 정 최고위원의 지지 철회 선언은 오히려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결집을 가속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 /연합뉴스

경호관 심부름 왜?

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 당일 투신하지 직전에 수행했던 경호관을 왜 심부름 보냈을까?

27일 경찰 발표에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전 6시14분께 부영이 바위 정상에서 당시 수행하던 이모 경호관에게 250m가량 떨어진 정무원 사찰에 가서 선 법사(선재규 원장)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심부름을 시켰다.

경호관이 정무원으로 가서 선 법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3분 뒤에 돌아왔을 때 노 전 대통령은 이미 투신하고 없었다는 것이 이 경호관의 진술이다.

盧 전대통령의 마지막 배려

경찰이 당시 경호관들간의 통화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.

결국 노 전 대통령은 일부러 심부름 보내 떼어놓은 뒤 홀로 있다가 투신했다는 얘기가. 그 이유에 대해 이 경호관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'마지막 배려'가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. 주요 인사 등을 지키는 경호관은 업무특성상 전 대통령과 같은 경호 대상이 위협에 처했을 경우 몸을 날려 보호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. /연합뉴스

따라서 노 전 대통령이 바위 아래로 투신하려는 모습을 경호관이 봤다면, 몸을 날려 막으려 했을 것이라는 게 경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.

이같은 경호관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이 이 경호관이 자신을 구하러다 같이 목숨을 잃을 것을 걱정해 심부름을 시켜 일부러 떼어놓았다는 것이다.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전에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이다. /연합뉴스

합격을 가장 많이 시킨 회원만이 공무원합격의 Know-How를 안다!! www.hanbitgosi.co.kr

7·9급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!

2008.9.27사법 합검고시합원 출신 중앙선판원 (판중/전남/북) 장영환 1084.7

합원선택은 심적입니다. ▶ 2008년 국가직 389명 합격 ▶ 2008년 서울시 지방직 209명 합격 ▶ 2008년 전남지방직 89명 합격 ▶ 2008년 광주지방직 119명 합격 ▶ 2008년 경기지방직 42명 합격

한빛최고의 합격시스템 전국 최강의 강사진, 최고의 시점에서 당신의 수강만을 권리가 있습니다.

▶모여나니 7·9급 합격대박!▶ 문제풀이 개강 6월 1일

종합반/단과반

한빛소방직전문학원 광주 북구영동동 234-0234

= 합격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학원! , 無等과 만나세요!! =

7·9級 공무원 소직렬

30 40 낮이 주부반모집합치 해교세관감법검마철교보보간복소기 합 후 소방인력 8395명 출원한다

시험일정 및 채용인원

- 시험일: 국39급, 매년 4월 / 7급, 7월 시행
- 지9급, 매년 5월 / 7급, 9월 시행
- *서울 7.9급 행정직 매년 7월 시행
- *채용인원: 7.9급 국가직 3~4천명, 지방직 4~5천명
- = 대한민국 공시합격의 선구자 無等!! =

개강 6월 1일 (주·야 혼동반 모집) (현재상업접수중)

본 학원 강의 과목

국어, 영어, 한국사, 행정법, 행정학, 교육학, 세법, 회계학, 형사법, 민사법, 헌법, 경제학, 교정학, 복지학, 소방학, 법, 공중보건학, 상사, 기타

= 주간반 2개월, 야간반 3개월 완성 =

최선을 다하지 않고 꿈을 이루려는 것은 허영에 불과하다!! =

부대시설

- 정확실(300여)서 - 구내사당
- 민타(20여)실 - 지하주차장
- 맞춤식 학원용 최신시설!
- 배달식 프요일 특별 오외고시 실시

무등고시학원

광주 동부서구 (중안초교 후문앞) ☎ 222-4560 www.mdgosi.co.kr

전국 최고의 교수진 합격 보장!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

경 찰

전경 및 경찰행정학과 특남 여순경 공채 개강 매월 초(합격시스템)

※6개월과정 광주지역 서재형, 오경수 합격

6개월과정 1년과정

- 2개월 완성 3회 반복학습
- 2개월 완성 6회 반복학습
-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명
- 영어 기본이 안된 수강생 한명
- 수강료 25%(D/C) 교재 15%(D/C)
- 수강료 50%(D/C) 교재 15%(D/C)

합격매출 1위 교수진

영어 이방희

- 경찰 영어 70% 합격자
- 폭폭 짝이 쉽게 강의
- 강의경력 15년

경 찰 학원

- 신경형 경찰학 개론 직강
- 남부 경찰학원 전임
- 광주메가경찰학원 전임
- 경 찰 허문표
- FRST 최강 합법 직강
- 노량진 전국경찰 전임
- 광주메가 학원 전임
- 강의경력 22년
- 광주 순천 예인 전임
- 광주 메가 경찰학원 전임
- 홍소함 김현중
- 서사 1차 3회 합격
- 서울 법원 겸수관(재판) 1년 경
- 형사법출판재판이 확보되고 있다

www.gmega.co.kr ☎ 226-5050

전남 여고 후문 학원가